

“스님의 생음악 나갑니다”

[지허]보령삼매봉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설익은 보리] ^^
[튼구름] 이익이 분에 넘치며 어리석은 마음이 생기나니
[보문의 추억]오늘도 어김없이 가사를 한글로 쳐주시는
튼구름님
...

불교음악감상실 운영
지허·보명 스님과 박금표 씨

채팅 통해 곡 접수, 직접 부르기도
매일 두시간 동안 라이브로 진행
찬불가 보급, 함께 부르기에 앞장

18일 오전 9시 인터넷 찬불가 전문방송국인 불교음악감상실(www.sambori.com) 부처님 나라 대화방. 뜬구름, 선, z리리 z, 가을사랑, 동영, 푸른나무 등의 아이디를 사용하는 10여명의 네티즌들이 찬불가 방송을 들으며 채팅을 한다.

같은 시각, 경기도 안산시 천수사, 주지 지허스님과 보명스님, 그리고 박금표씨는 각각 '지허', '보문의 추억', '설익은 보리'라는 아이디로 대화방에 동참하며 노래방기, 컴퓨터, 마이크 시설 등의 장비를 갖춘 주지스님방에서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불교음악감상실의 찬불가 음악방송은 매주 화요일 천수사 주지 지허스님이, 수요일에는 인천 월현사 주지 보문스님, 나



◇불교음악감상실 진행자들이 한곳에 모였다. 우측부터 보명, 지허스님, 박금표 씨.

머지 요일은 한국외국어대학교 남아시아연구소 전인연연구원 박금표씨가 진행 한다. 하지만 오늘은 세명의 진행자가 모두 한자리에 모였다. 특별히 공지하지는 않았지만 찬불가를 사랑하는 불자 네티즌들에게 짝짝 선물을 주기 위해 세명의 진행자가 의기투합한 것이다.

평소 음악방송은 한명의 진행자가 채팅을 통해 찬불가 신청곡을 받아 불러주기도 하고 직접 라이브로 부르기도 한다. 특히 박금표씨가 방송을 진행하는 날에는 찬불가 감상과 함께 박씨가 직접 준비한 <승만경> <잡아함경> 등 경전 내용을 MP3파일로 참석자들과 함께 들으며 경전공부를 하고 있어 인기를 끌고 있다.

오늘은 지허스님이 며칠간 연습한 유익종의 '바라나 불수 있어도'라는 대중 가요를 불러 좋은 반응을 얻었다. 가수를 꿈꾸는 박금표씨의 딸 강혜은양도 초대가수로 보아의 '늘'이라

는 노래를 네티즌들에게 선사했다.

2001년 7월 2일 '찬불가를 사랑하고 불교의 향기를 느낄수 있는 곳'이라는 슬로건 아래 찬불가 전문 음악방송으로 사이버 공간에 등지를 한 불교음악감상실. 지난 2년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생방송으로 찬불가 음악방송을 운영한 결과 지금은 방송 청취자와 찬불가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불교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단체를 결성, 찬불가 보급과 창작에도 많은 역할을 하고있다.

지허스님은 "스님이 방송을 한다는 것에 대해 다소 시선이 좁지는 않지만 평소 불교음악이 대중화되지 못한 점이 아쉬워 매일 방송을 하게됐다"며 "앞으로 불교음악감상실을 중심으로 찬불가 보급과 창작에 앞장서 보다 많은 불자들이 찬불가를 부를수 있도록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두식 기자 doobi@buddhapia.com



인전 보명사 (www.bomyungsa.com)

인천광역시 연수구 등촌동에 위치한 양산 통도사 인전포교원 보명사는 신중을 위중한 사찰과 달리 현대인들의 생활과 그 코드를 같이하는 도심 포교당이다. 주지 성민스님은 맛깔이 부부가 많은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 지난해 부임하자마자 직접 'www.bomyungsa.com'이라는 도메인을 등록하고 사이버공간에 보명사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바쁜 일상생활 때문에 일요일마저 절에 나오지 못하는 지역 불자들에게 사이버 공간이지만 사랑방을 만들어 지친 몸과 마음에 활력을 불어넣고 싶어했다.

평소 컴퓨터와 사이버 공간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 성민스님은 웹 마스터 역할을 자청해 홈페이지를 관리 운영했고, 직접 경전을 찾아가며 신도들에게 삶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고 힘이 될 수 있는 질 좋은 콘텐츠를 생산했다. 스님의 노력으로 지금은 거의 모든 신도들이 보명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생방송을 구원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을 정도로 홈페이지가 활성화

되었다. 또한 보명사 홈페이지에는 다른 사찰홈페이지에서 볼 수 없는 스님법문, 사찰 소개 등의 동영상과 찬불가, 대중음악 등 방대한 콘텐츠들이 올려져 있어 불자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다시 방문하고 싶은 홈페이지로 소문나 있다.

정보화 인프라도 아주 훌륭하다. 종무소를 비롯해 스님방 등에 자유롭게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많은 투자를 했다. 특히 어린이 법당의 경우 아이들이 마음 놓고 즐길 수 있도록 컴퓨터 두 대를 설치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사찰 종무 역시 나이트 신도들을 위해 신도카드를 종무소에 비치하고는 있지만 이같은 하드웨어적인 장점을 살려 독자적으로 개발한 틀을 활용해 전산화를 마친 상태다.

성민스님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활약 못지않게 오프라인에서도 보령불교대학 운영, 한지공예 강좌 개설, 인하대 불교동아리 지도 법사 등 다양한 지역불교활동을 함께 펼치며 동분서주하고 있다.

김두식 기자

지역 포교 방편으로 홈페이지 활용

독자적 개발 툴 활용 전산화 완료



◇성민스님은 보명사 홈페이지의 '주지 스님과의 대화' 코너를 통해 신도들에게 신행정답을 하고 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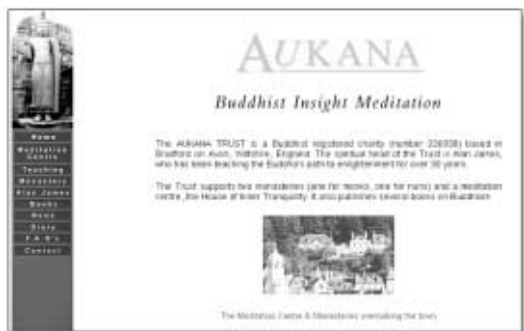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정신의 이 말씀, 당신께서 투자하는 단, 9일간의 내면 여행으로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 02)396-2736 · HP 016)228-2358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bokbat@kornet.net

해외불교사이트 순례

아우카나 (<http://www.aukana.org.uk>)



아우카나(<http://www.aukana.org.uk>)는 영국인 수행자 앨런 제임스 스님이 개설한 참선 안내 사이트이다.

영국에서 25년간 '부처님의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온 앨런 제임스 스님은 1940년 영국에서 태어나 68년 태국의 램달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아우카나에서 제시하는 수행방법은 남방 상좌부 계열의 전통 참선이 다. 이와 함께 현대사회·문화적 조건들을 반영시킨 새로운 제종도 채택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전통적인 불교계통과는 달리 비구, 비구니가 동일한 계율 항목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다. 깨달음에 대한 방법으로는 철저하게 계·정·혜 삼학에 근거한 전통적인 수행법을 강조한다.

IT다산

“컴퓨터가 열 받았다”

여름철 컴퓨터 관리 이렇게

물건 올려놓지 말고 벽과 거리 유지
본체 쿨러 부착, 열 분산에 효과

이번주를 고비로 장마가 끝나고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사람도 더위를 먹으면 힘이 빠져 이상 증세를 보이듯 컴퓨터도 마찬가지다. 컴퓨터가 열을 받으면 오작동을 일으키거나 수시로 다운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컴퓨터에 사용되는 반도체가 열에 약해 기능이 떨어지거나 작동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같은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PC본체를 책상 밑 벽쪽에 비껴 놓거나 본체 위에 다른 물건을 올려놓지 말아야한다. 경제적인 여유가 된다면 PC 본체에 쿨러를 달면 열이 분산되기 때문에 효과적이다. 또한 컴퓨터에서 열을 가장 많이 내는 CPU나 그래픽 카드에 직접 쿨러를 달아도 컴퓨터의 성능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된다. 쿨러 가격은 1~3만원 정도.

계산연보기

○바쁜 적 살아도 그속에 숨겨진 낭비되는 아까운 시간들, 누군가가 벗어놓은 껍데기같은 일상의 의미, 늘 가슴에 걸렸는 데...

늘 미소짓는 넉넉한 웃음 뒤에 인고의 열매를 가꾸고 있는 너의 열정이 감추어져 있었구나. 언제나 총대의 열반의 미소가 생각난다.

이종용, 소림불교학성회 다음 카페 게시판

○늘 밝고 맑은 마음으로 어두운 모든 이에게 행복과 성취의 희망을 던져 주시길 바랍니다. 따뜻하고 흥만함을 마행으로 늘 더불어 즐겨온 날이 되시길...

무심즉심, 불광사·불광법회 병행록

○봄, 여름, 가을, 겨울 언제나 항상 맑고 고운 바람으로 감싸안은 오대산. 몇 주 전에도 오대산에 갔었는데, 그 맑고 고운 바람에 얼마나 감동했는지 모릅니다.

하늘북, 타허닷컴 자유게시판

중국 티베트의 신산(神山) 수미산(mt.Kailash:6,714m) 네팔 룸비니 순례 함께 하실분을 모집합니다

1. 대상지: 중국 티베트(수미산, 에베레스트 베이스캠프 롱부크, 옛 구개왕국), 네팔 포카라, 룸비니.
2. 일 시: 2003년 8월25일 부터 ~ 9월18일 까지
3. 대상자: 사부대중 (신체건강하며 순례에 이상이 없는자)
4. 동행자: 약간명
5. 준비물: 개인장비(세부적인것은 모임시 발표)
6. 문의처: (051)441-2811, 442-1814
7. 주 관: 부산등산연구소, 부산등산교실, 한국불교산악회, (주)제일항공여행사
8. 후 원: 서장(티베트)중국여행사, 네팔아시아트레킹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 해독다이어트 ☆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 생활하며, 공복감 없이 2주에 5~8kg 뺄 수 있다. 95%의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나는 현실에서 수십년간 몸안에 쌓인 온갖 노폐물이 빠져나와 체중감량이 된다는 이강욱 교수의 20여년 임상경험은 비만인들에게는 귀가 번쩍 뜨이는 희소식이다.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자가 살빼기가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가능의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 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져, 건강해질로 바꾸는 발효원액 절삭법

똥통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현대의학으로도 규명 못하는 노폐물이 장 속에는 이끼처럼 속면이 쌓이고 관절 사이 사이에 박히고 간에는 지방이 엉기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굳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 빼는 약을 먹거나 몰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지지만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어도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해 지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발효원액은 우리몸에서 자란 50여종의 야채, 과일, 해조류 등을 3~5년간 장기간 자연발효 숙성시킨 것으로 그 속에는 천연비타민과 미네랄, 수역의 효소들이 살아 숨쉬고 있다. 이것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인체의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효소는 인체 곳곳에까지 쓰레기처럼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과잉으로 축적되어있는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 대수술을 일상 생활 중에 소리없이 진행한다.

02)523-0708 초록원 (팔보호소)

친환경을 선도하는 기업 유창!

해충잡는 박멸기

날벌레, 모기, 하루살이 등 각종 날벌레가 가장 좋아하는 자외선 3파장 전광램프를 이용하여 벌레를 유인, 팬의 흡입력으로 팬아래 위치한 채집망으로 벌레를 빨아들여 냄새나 향, 소리없이 해충을 박멸시키는 장치이다.



●제품의 특 · 장점

1. 실내에 하나만 걸여 놓으면 모기와 날벌레를 쫓아 버립니다.
2. 조명결함으로 동시 사용할 수 있으며 흡입식으로 냄새와 소리가 전혀 없습니다.
3. 날벌레들이 좋아하는 빛을 발생시켜 팬으로 빨아들여 모기, 날벌레, 나방, 해충을 박멸시킴으로 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4. 전자식 절전형으로 제작되어 전기료가 경제적입니다.
5. 전원을 끄면 서터팬이 작동되어 닫히게 되므로 포집된 해충들이 제품 외부로 나오지 못하게 된다.
6. 모터의 용량이 크며 팬의 직경이 커서 흡입력이 뛰어나며 넓은 범위의 해충을 유인하여 박멸한다.

실용 신안등록 출원 제0291020호
주식회사 유창
www.ryuchang.com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금리리 572-9
TEL : 031)358-5011-6 FAX : 031)358-5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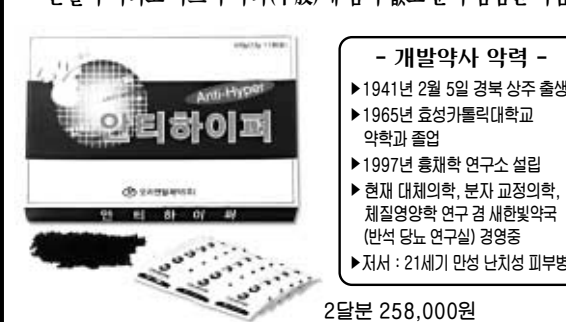
중풍(뇌졸중)고혈압 해결책 보인다

100% 한방생약제제 Anti-Hyper

한국인의 사망을 1위 : 고혈압 및 상관된 질환인 뇌졸중 · 심장마비 · 협심증 · 심근경색

Anti-Hyper (Anti-Hyper) 복용이 꼭 필요한 사람

- 고혈압환자
- 협심증, 뇌졸중(중풍), 동맥경화증, 심근색화환자 및 동 질환 예방
- 약물(신약)의 각종 부작용이 염려되는 사람
- 당뇨병과 고혈압 등의 심혈관계 질환을 동시에 앓고 있는 사람
- 손발이 저리고 아프며 다리(下肢)에 힘이 없고 눈이 침침한 사람



2달분 258,000원
구입신청 033-255-5669 오리엔탈제약(주)